



추석 명절 가정 예배

묵상기도 다 같이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 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분

성경봉독 벧후 3:12~13 다 같이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나눔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인 도 자

주기도문 다 같이

축복과 비전나눔 다 같이

집안 어른들께서 지난 은혜를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예문)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다른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서로를 향해 사랑과 축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문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예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용서와 사랑을 인류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그대로 방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의 온갖 것에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유별난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외면하고 한시적인 인생을 제 맘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 당신 품으로 나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8-9)

땅 위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한시적입니다. 무엇보다 이것들은 무척이나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오직 자비와 사랑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주십니다. 인본적인 의지와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